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5/18~5/22]

“사이드카 터졌다고 쫓지 마라 ... 외국인이 반도체 던지고 몰래 담는 '이 종목' 3가지”

-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업종과 종목으로 다변화
-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10년 국공채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 면밀히 점검
- 기존 주도주 신규 진입보다는 비반도체, 비IT 섹터 비중을 확대하는 다변화 전략
- 유망 섹터는 반도체, AI 로봇, 게임, 증권, 은행, 전력기기 관련 업종 등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업종과 핵심 종목으로 다변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업종과 종목으로 다변화

이번 주(5/18~5/22) 한국 증시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채 금리 급등 등 단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장사 이익 컨센서스 상향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나, 이는 경기 회복과 수출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부담 요인에 가깝다.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초대형 반도체주로 집중됐던 수급이 일부 차익실현 구간에 진입하면서 지수 상단 부담은 존재한다. 반면 시장 내부적으로는 증권, 게임, 에너지, 유통, 조선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건강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단순 테마 장세가 아니라 이익 전망치 상향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실적 장세라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업종과 핵심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10년 국공채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 면밀히 점검

금주 시장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잔존에 따른 고유가 지속 여부,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4.5% 상회 및 국고채 금리 레벨업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도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 속도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 및 관세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달러화 약세와 동아시아 통화의 중장기 강세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기존 주도주 신규 진입보다는
비반도체, 비IT 섹터
비중 확대하는 다변화 전략

기존 주도주 신규 진입보다는 비반도체, 비IT 섹터 비중을 확대하는 다변화 전략

반도체 섹터의 이익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나 단기 과열 및 수급 쏠림 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 스탠스를 유지하고, 하반기 뚜렷한 실적 턴어라운드와 양호한 유동성 환경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비반도체 및 비IT 섹터로 비중을 확대하는 다변화 전략이 유리하다. 거래대금 폭증 이후 약 1~2개월간 예탁금 감소와 함께 초대형주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수 대형주보다는 업종별 이익 개선 상위 종목 중심의 압축 매매 전략으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야 한다.

투자유망 섹터 및 주요 관심 종목

금주 투자 유망 섹터는 반도체, AI 로봇, 게임, 증권, 은행, 전력기기 중심으로 압축한다. 관심 종목은 SK 하이닉스(000660), 현대차(005380), 우리금융지주(316140), 한미약품(128940), 넷마블(251270), HD 현대일렉트릭(267260), 신세계(004170), OCI 홀딩스(010060), 심텍(222800), 미스토홀딩스(081660) 중심으로 제시한다.

[금주 5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7,250 ~ 7,650 pt
전망**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7,350pt ~ 7,650pt 사이로 제시한다.

금주 코스피 지수의 밴드를 7,350pt 에서 7,650pt 사이로 제시한다. 최근 채권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장중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는 주가가 이익을 앞서 나간 버블의 붕괴라기보다는 초대형주 중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 기인한다.

당사는 하반기 코스피 전체 밴드는 6,600~9,100p 로 상향조정하며, 현재 2026 년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 조원, 2027 년은 853 조원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 2010 년 이후 코스피 평균 PER 이 9.96 배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2027 년 순이익 선 반영 시 지수의 장기 상단은 10,380p 까지 열려 있어, 현재 7.6 배 수준의 12 개월 선행 PER 은 대외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매력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판단된다.

주요 5대 핵심 이슈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반도체 및 초대형 주 시가총액 쏠림 극대화와 기계적 자금 분산 압력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코스피 내 시가총액 비중은 약 48%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 수준의 쏠림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비록 두 기업의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이 72%에 달해 이익 측면에서는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포트폴리오의 위험 기여도(Component VaR) 관리와 분산투자 효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과 연기금 등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비중 조절과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독주 체제는 완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관 자금이 비반도체 영역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채권금리 레벨업과 달러-원 환율 1,500 원 돌파에 따른 외환 수급 변동성

미국채 10 년물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4.5%를 상회하고 국내 국고채 3 년물과 10 년물 금리가 각각 3.75%, 4.2% 수준까지 가파르게 레벨업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자극되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500 원을 돌파하며 수급 부담을 키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및 반도체 수출 강세 지속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축소되어 환율은 1,400 원대 중후반으로 점진적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셋째, 국내 기업 이익 컨센서스의 전방위적 상향 조정 (+10.7 조원 증익)

최근 국내 기업 합산 2026 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근 1 주일간 +1.2% 상향 조정되며 약 10.7 조원 규모의 증익이 반영됐다. 특히 2026 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4%로 한 달 전(+158%) 대비 눈에 띄게 가팔라지고 있으며,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서도 연간 +26% 수준의 견조한 실적 성장이 확인되어 증시의 하단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넷째, 미-중 정상회담의 완화적 스탠스와 이란 리스크 잔존에 따른 유가 등락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지정학적 완화 스탠스가 확인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지속 입장과 미국의 대이란 강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이 배럴당 103 달러를 상회하는 등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 에너지 및 정유 화학 업종의 단기 실적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KTOP30 거래대금 폭증 이후의 일시적 고객예탁금 수급 공백 유의

KTOP30 일간 거래대금이 43 조원까지 급증하며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과거에도 거래대금이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뒤 1~2 개월간 고객예탁금 감소와 개인 자금 유입 둔화가 나타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주 초반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상승 요인****첫째, 반도체 수출 초과수요 통사이클(Long-cycle) 지속과 단가 상승세 강화**

현재 범용 DRAM, NAND 및 고부가가치 메모리(MCP/HBM)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 2017~2018 년의 임시 서버 사이클과 달리, 공급이 지극히 안정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초과수요가 맞물려 장기화되는 특성을 지녀 국내 대형 기술주의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내수 경제의 바닥 통과 신호 및 민간 소비·관광 수입의 견조한 플러스 효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 년 이후 처음으로 2%대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 상승과 함께 올해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한 36.5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수 회복 기조는 국내 명목 소비를 약 0.4%p 견인하는 효과를 내어 내수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한다.

셋째, 한-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도 강화 및 수출 대외 수요의 다변화 안정성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동반 상승하며 확장재정 기조가 든든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첨단제품 수출 비중 확대 및 가공수출 탈피로 대외 수요 변동 폭이 축소되고, 한국 역시 라면, 화장품 등 소비재와 전력기기 등 기계 가공 제품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매크로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

하락 요인**첫 번째는 글로벌 채권금리 동반 상승 압력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성 및 사이드카 발동 위험**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금리 논의가 확대되며 글로벌 채권금리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채 및 국고채 금리가 동반 폭등하고 있다. 이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금융투자 및 외국인의 투매를 유발하고 지수의 하방 변동성을 키우는 최대 유인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실적 악화 및 수입물가 상승 부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이란 충돌 우려에 따른 고유가 지속 가능성은 intermediate(중간재) 및 원재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직접적 소비자물가는 제한되나,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누적될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 대응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미국계 및 영국계 자금의 연속적 순매도 행진과 수급 파편화에 따른 매수 공백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은 최근 6 개월간 32.8 조원의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했고, 영국계 자금 흐름 역시 코로나 19 시기보다 악화된 최악의 수준을 보여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증시를 대변하던 EWH ETF 에서 최근 반도체 전용 DRAM ETF 로 자금이 이탈하는 등 수급 파편화 현상도 지수 견인력을 약화시킨다.

변수 요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 재정적자 추가 확대 여부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수입 감소 가능성이 커졌고, 이란 관련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며 미국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와 미국채 발행 부담을 자극하는 변수다.

또한 한국은행의 Terminal Rate(최종 기준금리)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의 시점도 중요하다. 금통위의 매파적 기조가 강화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상 시점과 속도에 따라 채권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 대 금융지주 중심의 '생산적 금융' 하반기 조기 집행 완료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 효과다. 생산적 금융 조기 집행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는 하반기 유동성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및 주요 관심 10 종목]

당사는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에 남아 있는 비반도체 이익 개선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제시한다.

증권 업종은 최근 1주일간 이익 변화율이 +8.4%로 가장 높고 거래대금 증가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게임 업종 역시 신작 성과를 바탕으로 이익 전망치가 +8.2% 상향되었다. 에너지 및 유통 섹터 또한 실적 턴어라운드폭과 내수 회복 조짐에 힘입어 이익전망이 각각 +7.8%, +5.7% 상향 조정되어 단기 낙폭과대 이후 반등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금주 주요 투자 유망 관심 10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1,296,405.6	1,819,000	+7.89
005380	현대차	자동차	143,330.4	700,000	+14.19
316140	우리금융지주	은행	22,939.9	31,250	-4.87
128940	한미약품	건강관리	6,053.2	472,500	+8.37
251270	넷마블	소프트웨어	3,539.6	43,200	+0.47
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42,499.6	1,179,000	-15.97
004170	신세계	소매(유통)	5,109.8	541,000	+26.25
010060	OCI홀딩스	화학	5,433.0	291,000	-8.63
222800	심텍	IT하드웨어	3,757.6	100,300	-13.39
081660	미스토홀딩스	화장품, 의류, 완구	2,081.2	39,200	+2.89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핵심 관심 종목
10 선 및 투자 포인트

SK 하이닉스 (000660):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독보적으로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 동반에 따른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의 최대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 (005380): 글로벌 자동차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실적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견조한 대외 수요 증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및 피직컬 AI 대표주로 부각된다.

우리금융지주 (316140):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도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여신 공급을 활발히 주도하며 대출 포트폴리오의 이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미약품 (128940): 차세대 비만치료제 'HM15275'의 글로벌 임상 로드맵 본격화로 대외 매크로 변동성과 무관한 독자적 바이오 모멘텀을 보유했다.

넷마블 (251270): 하반기 대형 신작 모멘텀과 비용 효율화 성과가 맞물리며 게임 업종 내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HD 현대일렉트릭 (267260): 글로벌 전력망 인프라 구축 및 AI 데이터센터 라인 확장에 따른 전력기기 초과수요 통사이클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신세계 (004170): 국내 민간소비의 2%대 반등 조짐 및 외국인 관광 수입 급증 수혜가 겹치며 연간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대표적 저평가 유통 주다.

OCI 홀딩스 (010060): 우주·데이터센터향 다년 공급계약 협의와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기대가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쓸림의 시대'는
위험관리 구간

심텍 (222800): 글로벌 반도체 기판 수요 회복과 함께 고부가 패키지 기판 중심의 출하량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스토홀딩스 (081660): 비 IT 및 소외 섹터 내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의 건강한 자금 순환매 과정에서 수급 유입 잠재력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은 채권금리 상승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부담 요인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 전망이 지지하는 펀더멘털 장세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 등 격렬한 숨고르기를 보인 것은 강세장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동성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시장의 중기 상승 흐름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특정 초대형 반도체 주로만 돈이 몰리던 극단적인 '쓸림의 시대'는 기관투자자들의 위험 관리 목적의 매도와 자금 분산 압력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정점 통과 구간에 진입했다.

최근 이익 추정치
상향되고 있는
게임, 유통 섹터 등
훌륭한 대안

지금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스탠스는 반도체 주의 무리한 추격 매수를 지양하고, 그동안 실적이 좋은데도 지수 성장에 가려져 철저히 소외되었던 '비반도체 이익 상향 업종'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특히 최근 1 주일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대폭 무더기 상향된 증권, 게임, 에너지, 유통 섹터의 대표 주들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거래대금 폭증 이후 일시적인 수급 공백으로 지수가 주춤할 때마다, 앞서 제시한 우리금융지주, 넷마블, 오씨아이홀딩스 등 확실한 실적과 주가 상승 사유를 가진 종목들을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통해 비중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강세장은 늘 변동성을 동반하기에, 투자자는 낙관론에 취하지 않고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해 끈기 있게 보유하는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주 주요 미국,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미국
서비스업 완만한 회복,
제조업의 확장 둔화,
고용 안정,
에너지 수급 긴장 점검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는 서비스업의 완만한 회복, 제조업의 확장 둔화, 고용 안정, 에너지 수급 긴장을 함께 점검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PMI는 51.1로 이전 51.0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이는 서비스업이 50 선을 간신히 웃돌며 확장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제조업 PMI는 53.6으로 이전 54.5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제조업은 확장권을 유지하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S&P Global은 4월 미국 제조업 PMI가 47개월 고점인 54.0을 기록했지만, 공급 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판매가격 상승 압력이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조업 확장이 투자자에게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물가 부담을 동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완만한 냉각 국면

고용은 여전히 안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0K로 이전 211K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

이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는 침체형 흐름이 아니라, 채용 둔화 속에서도 해고가 낮게 유지되는 완만한 냉각 국면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이 버티는 상황에서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렵다. Reuters 설문에서도 전쟁 관련 에너지 충격과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2026년 후반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FOMC 회의록이 핵심이다.

회의록에서 연준이 물가 재상승과 성장 둔화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와 글로벌 채권금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했고, 금 가격은 달러와 금리 상승에 밀려 1 주일 이상 저점까지 하락했다는 Reuters 보도도 있었다. 이는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 지연, 물가 재가속, 안전자산 금리 상승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5/12(화)	FOMC 회의록	-	-	연준의 물가 재상승 경계 강도가 금리·달러 방향을 좌우할 전망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17.9	26.7	제조업은 확장권이지만 모멘텀은 둔화될 가능성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0K	211K	노동시장은 안정적이며 조기 인하 명분은 약해질 수 있음
	제조업 PMI	53.6	54.5	제조업 확장 유지되지만 속도 둔화와 비용 부담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
	서비스 PMI	51.1	51.0	서비스업은 간신히 확장권에 머물며 강한 회복 신호는 제한적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미국 경제데이터 종합 해석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주 데이터는 **성장 둔화보다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이 시장을 더 크게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조업·서비스업은 모두 확장권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속도는 강하지 않다. 반면 원유재고 감소와 중동 공급 차질은 에너지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둘째, **고용이 안정적인 경우 연준의 조기 인하 기대는 더 약해질 수 있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210K 부근에 머문다면 노동시장은 침체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이며,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연준은 완화보다 관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일본 국채금리 상승도 미국 국채시장에 부담**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장기금리 급등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등 해외채권에서 자금을 회수(엔캐리 트레이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장기금리의 하방을 제한하고, 글로벌 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은 **AI 반도체·소비·주택·리테일·농기계·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점검하는 구간이다. 주요 실적 발표 기업은 **홈디포(HD), 키사이트(KEYS), 엔비디아(NVDA), 아나로그디바이스(ADI), TJX 컴퍼니(TJX), 로우스(LOW), 인튜이트(INTU), 타깃(TGT), 월마트(WMT), 디어(DE), 로스스토어스(ROST), 워크데이(WDAY), 코파츠(CPRT)** 등이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

가장 큰 축은 **엔비디아(NVDA)**이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은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핵심 이벤트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수요, 차세대 AI 칩 공급, 고객사의 AI 투자 지속 여부가 시장 전체 투자심리를 좌우할 전망이다. 엔비디아가 강한 매출과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해석이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가이드언스가 보수적이면 AI 관련주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두 번째 축은 미국 소비와 주택경기이다. 홈디포(HD), 로우스(LOW)는 주택 리모델링과 건축자재 수요를 보여주는 대표 종목이다. 특히 홈디포와 로우스 실적은 주택 개선 지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로우스는 고금리와 관세 불확실성, 정체된 주택시장 속에서 보수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기에, 이번 발표에서는 DIY 수요보다 전문 시공업자 수요, 고가 프로젝트 지연 여부, 소비자의 대형 지출 회피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세 번째 축은 대형 리테일과 소비 양극화이다. 월마트(WMT)는 필수소비와 저가 채널 수요를, TJX 컴퍼니(TJX)·로스스토어스(ROST)는 오프프라이스 소비를, 타깃(TGT)은 선택소비와 중산층 소비 심리를 보여준다. TJX 는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 속에서도 매장 트래픽 증가로 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연간 매출·이익 전망은 보수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가 전반적으로 붕괴한 것이 아니라, 리테일 소비가 가성비 채널로 이동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일 자	종 목
5/19(화)	홈디포(HD), 키사이트(KEYS)
5/20(수)	엔비디아(NVDA), 아나로그디바이스(ADI), TJX컴퍼니(TJX), 로우스(LOW), 인튜이트(INTU), 타깃(TGT), Nordson(NDSN), 해즈브로(HAS)
5/21(목)	월마트(WMT), 디어(DE), 로스스토어스(ROST), 테이크투(TTWO), 워크데이(WDAY), 코파츠(CPRT), 랄프로렌(RL), 덱아웃도어(DECK)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종합적으로 엔비디아가 AI 성장주의 상단을 결정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AI 성장주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월마트·TJX·로스스토어스가 소비 방어력을 확인하며, 홈디포·로우스가 주택경기 하방을 점검하는 구조이다.

투자자는 실적 발표 후 단순 EPS 보다 가이던스, 동일점포매출, 재고, 마진, AI 수주, 주택 수요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